

에믹(emic)과 에틱(etic)방법을 이용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 분석*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 Occurring Development Process
of Tourism-Leisure Type Enterprise Cities Using Emic
and Etic Approaches

김 남 조**

Kim, Nam-J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auses and structure of conflict among stakeholders which occurr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ju tourism-leisure style enterprise city, using emic and etic approaches. As to use emic and etic approaches, basically from linguistics using ethnographic perspective, this study could find the local culture and social representation from insider's view and outsider's view, interviewing 6 stakeholders, observing their behaviors and social atmosphere of local villages, and reviewing some materials related to the enterprise city plan. As the emic is related to insider's view, so the etic is outsider's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idents on developing site had different thoughts and respons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nterprise city, compared it to the propulsive bodies including 'private corporation leading the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his different recognition was resulted from deconstruction of residents' inherent community base, probable threat of their subsistence, and lack of transparent communication on the information of developing the enterprise city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propulsive bodies, which influenced the failure to construct confidence between the stakeholders.

핵심용어(Key words) : 에믹(Emic), 에틱(Etic), 관광레저형 기업도시(Tourism-leisure style enterprise city), 갈등구조(Conflict structure)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B01083)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e-mail: njkim@hanyang.ac.kr

I. 서 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4.12.31)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전북 무주,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지역이 지정되었다. 추진주체인 기업과 관련 기관은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관리하여야 하는데, 넓은 면적에 걸친 대규모의 공간계획이고 토지수용과 보상 그리고 주민의 이주 등이 수반되는 사회적 계획이다보니 계획의 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간에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표출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의견은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구조를 반영한다. 사회구조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사상과 동시대의 사회환경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개인의 이해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나 사회환경적인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갖는 많은 이해집단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정책의 틀과 접근방법은 거시적인 틀 속에서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지역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하였고, 결국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정책적인 틀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믹(emic)과 에틱(etic)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에믹과 에틱은 원래 언어학에서 민속지학적인 관점(ethnographic perspective)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방법(Pike, 1967: 37-40)으로, 에믹은 지역 주민의 언어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에틱은 일반론적이고 외부자적인 기준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기술하려는 방법이다. 최근 집단적이고 일반적인 개성을 조사·분석하여 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예: 마케팅의 사이코그래픽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특성과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그 집단의 효능성(efficacy)을 향상시키려는 방법으로 특히 에믹적 접근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과 가치관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시장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케팅조사방법에서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홍보·관리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Herche, Swenson, & Verbeke, 1996). 또한 국적이 다른 종업원의 다양한 문화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관리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Morris, Leung, Ames, & Lickel, 1999).

에믹과 에틱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의 실체를 밝히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믹의 관점은 기존연구에서 등한시한 개인적인 갈등의 원인과 형성을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외부적 집단과의 갈등으로 전개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에틱의 관점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갈등을 해당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일반론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지역의 고유한 사회상을 고려하여 지역 자체적인 기능과 기준을 고려하는 에믹의 관점과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치 않고 외부적인 기준이나 논리적 계획에 의해 설정되는 에틱의 관점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서 그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기대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에믹적 관점과 에틱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에믹과 에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생성원인과 이해집단 간에 형성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해집단 간의 협력과 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이해집단간의 역학관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Reed, 1997).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광개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관련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문헌연구

갈등의 정의는 다양하다.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갈등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된 상태를 말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73). 갈등은 단지 의견의 불일치나 경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갈등은 공히 이해의 상충, 위협이나 손실에 대한 지각, 상호관계, 상호의존성, 권력, 저항의 요소를 갖는다(Axelrod & Johnson, 2005:5). Axelrod and Johnson(2005)은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이용하여 이해를 실제적인 이해(예: 물리적인 안전, 재정)와 심리적인 이해(예: 사회적 명성, 자존)로 구분하고, 자존심-자아성취와 관련된 심리학적인 갈등으로 갈등의 수준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검·이수광(2000)은 갈등은 본질성과 감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질성은 갈등이 합리적, 논리적이라는 것이고, 감정성은 갈등은 비합리적,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유종해(2000)는 갈등을 심리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즉, 갈등은 갈등을 겪는 당사자가 그 갈등을 인지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갈등은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변화할 수 있고,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개인에 국한된 성질의 갈등이 개인들 사이로 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집단 및 사회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천태윤, 2005: 32-35).

이와 같이 갈등의 특성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갈등은 개인이나 이해집단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요인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맥락 속에서 복합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보니 갈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갈등은 원인별로 사회학적 발생원인(인간의 본능적 성향, 좌절-공격이론, 상대적 박탈감,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갈등내용별 발생원인(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관계상의 갈등, 가치관 갈등, 정체성 갈등), 주체별 분류(내적 갈등, 개인간 갈등, 조직갈등간 갈등, 공공정책갈등, 국가간갈등) 등으로 분류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76-80).

지금까지 갈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은 지역사회의 세부적인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몇몇 계층을 유형화하는 계량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연구방법과 거시적인 통치이념과 정책의 틀 속에서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다. 또한 이해집단간의 역학관계를 권력이 좌우하는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인해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사회구조는 그대로 무시되고 갈등의 결과와 정책적 대안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더욱이 지역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행정학과 같이 거시적인 정책의 계획과 집행을 다루는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관광학분야에서는 그 필요성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다.

관광개발계획과정에서의 갈등문제는 주로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관광객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의 관점(예: Mathieson & Wall의 저서가 대표적임), 관광개발과정에서 시간의 흐름, 즉 개발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관점(예: Doxy(1976),

Butler(1980)의 연구, Johnson, Snepenger와 Akis(1994)의 연구 등), 이해 집단 간의 관계를 협력이론(collaboration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그 방향성을 제시한 관점(예: 신용석·이태희, 2005; 홍성화, 2003; Hall, 2000; Jamal & Getz, 1995; Selin, 1993 등), 관광개발이나 관광현상이 일어난 지역에서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갈등의 측면에서 직접다룬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처음의 세 가지 관점은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한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 영향을 다루는 연구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의 관점은 갈등이란 개념을 정립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세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관광개발이나 관광현상이 일어난 지역에서 갈등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McKercher(1992)는 Canada의 Northern Ontario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갈등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記述的으로 분석하고 있다. 옥외레크리에이션분야에서는 갈등(conflict)을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타인의 활동으로 방해받음으로 인해 목적을 추구하는 못함을 정의하고 북미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갈등을 활동참여자에 대한 행위적 측면, 즉 사회심리적·환경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 국내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적 분야, 행정학 분야, 특히 근래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가 매우 왕성하게 되고 있으나, 관광학분야는 아직도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신용석·이태희, 2005). 국내에서는 김창수(1996)의 지역관광개발계획 과정에서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와 송재호(1997)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이해 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신명석(2006)의 농촌관광개발에서의 이해집단의 갈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정도이다.

갈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지역주민과 관광기업간, 관광기업과 지방정부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집단간 갈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은 갈등의 원인을 유형을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記述的 연구방법과 요인분석과 같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는 곳의 내부자인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과 외부자인 상대되는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함께 비교분석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 Lederach(2003: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97에서 재인용)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immediate situation), 숨겨진 형태와 배경(underlying patterns and context), 개념적 구조(conceptual framework)를 파악하기 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믹과 에틱 방법이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의 갈등현황

본 연구에서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에믹과 에틱을 이용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군 안성면 일대 약 800만 m^2 (245만평)의 넓이에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협약에 따라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동개발방식은 최종적인 사업허가가 나면 사업예정지 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토지를 수용당하는 두 개 마을(두문리, 덕곡리) 300여명의 주민들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군청 앞 천막 농성, 1인 시위, 개발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집단행동을 벌였었다(문화관광부, 2007). 반면 비수용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유광민·김남조, 2007).

본 연구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또는 집단)를 크게 6 유형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개발지역의 범위에 속한 지역 주민이다. 이 지역주민은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이나 이주 등의 영향을 받는 '계획대상지역 지역주민'이다. 계획대상지역 지역주민은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에믹적 접근방법으로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지역은 아니지만 개발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지역주민'이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NGO'이다. 사실 지역 NGO는 조직적인 기관이라기보다 NGO활동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역 NGO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는 개발을 주도하는 '추진민간기업'이며, 다섯 번째는 추진기업에 행정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이고 여섯 번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으

로 입안하고 지원·조정·감독을 하는 '중앙정부'이다.

현재 이해관계는 토지수용·지역사회의 존속과 이주·개발이익·경제적 이익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추진주체인 기업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많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을 폐지 또는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일부기업을 위한 특혜·공공서비스의 폐쇄화·토지공공성 훼손·사유재산권 침해·부동산 투기·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추진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의 설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발대상지역의 범위에 있는 지역주민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이주와 보상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지역주민은 새로운 도시개발로 인해 수용지역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과 장차 다가올 개발효과를 기대하면서 내심 개발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입장은 점점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연구조사방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의견은 일단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점 여러 유형의 집단적인 의견으로 전이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집단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기존의 접근방법은 거시적인 틀 속에서 지역사회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였고, 결국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따라서 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정책적인 틀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미크(emic)과 에티크(etic)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세부적인 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전반적인 갈등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mic과 Etic은 전통적인 언어학의 어법의 Phonemic(音素)과 Phonetic(音聲)이란 단어에서 Phon(音)을 제거하여 언어인류학자인 Pike에 의해 만들어졌다. 에미크와 에티크방법은 민속지학적인 관점(ethnographic perspective)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방법(Pike, 1967: 37)으로, 에미크방법은 한 지역

사회에 대해 지역주민의 언어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에틱방법은 특정사회에 대해 일반론적이고 외부자적인 기준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기술하려는 방법으로 주로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한다. Pike(1967: 38-40)에 의하면, 에믹 관점은 한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의 발견에 중점을 두며 에틱 관점은 분석가에 의해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에틱 자료는 분석의 시작점으로 시험적인 결과나 시험적인 단위(요인)로 한 사회로의 접근을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분석이나 발표는 에믹단위(emic unit)에 있다. 여기서 에믹단위¹⁾는 내부자에 의해 취급되는 물리적 정신적 것이나 체계, 또는 행위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한다(Pike, 1990: 28).

에믹방법은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 외부자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외부자는 그 자신의 구조를 가져와서(즉, 그 자신의 에믹) 그의 외부의 시작점을 대하여 내부를 해석하면서 내부의 장면(견해) 위에 그의 관찰을 부분적으로 겹쳐놓는 것이다(Pike, 1986; Harris,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방법은 Levi-Strauss(1972: 13; Harris, 1990에서 재인용)의 “사물의 본성은 에믹이지 에틱이 아니다”라는 관점과 상통하며 결국 에틱방법에서 점차 에믹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자는 에틱방법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사건(소리, 의식, 활동 등)에 대해 이미 방향이 설정된 관점을 갖고 암묵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이것은 외부문화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함을 의미한다. 분석자는 또한 에믹방법을 통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맥락을 그 특정문화에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기능을 이미 방향이 설정된 관점을 갖고 분석한다(Berry, 1990). 이것은 마치 그곳의 사회현상이 독자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처럼 내부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ike(1967: 41)는 에틱방법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2차원적인 방법이라 보았고, 에믹방법을 3차원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Pike는 “에믹과 에틱자료는 이분법적인 자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먼저 에틱방법을 이용하여 무주 관광레저도시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수집 · 조사 · 분석한 뒤, 가장 갈등을 겪고

1) Pike(1990: 28-30)에 의하면 에믹 단위는 (a) 물리적 지각적인 행위에 대한 단위, 즉, 특정 문화에서 개인적인 참가자들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 문화의 맥락에서 어떤 현상의 발생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예: 야구에서의 스트라이크); (b) 특정 에믹 단위는 그 문화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명명되기 때문에 에믹 단위로 인식되는 것 또는 개념(예: 도끼는 지역에 따라 쉰이나 살인자의 의미가 있음); (c) 하나의 에믹 단위는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용법에서 다른 문화의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예: 도끼는 문화적으로 형태, 용법이 다르다) 등의 특징으로 언급된다.

있는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에 대하여 에릭방법을 이용하여 갈등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구조를 밝혔다. 에틱방법에서는 해당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관광개발이 진행 중인 타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갈등에 관한 현상과 원인, 그리고 유형 등이 일반론적인 인식에서 분석되었다. 즉, 에틱방법을 위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신문기사, 정부의 자료, NGO 등의 보도자료, 기존의 관광개발에서의 갈등관련문헌, 상대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심층면접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심층면접은 2007년 6월부터 지방정부, 추진민간기업의 관계자²⁾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에릭방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사실 각 이해당사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 면접조사 또는 현장관찰을 수행하였는데,³⁾ 그 조사대상자의 견해는 그 자체로 에릭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갈등의 측면에서, 즉 갈등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에틱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에 대한 에릭방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연구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도있는 얘기를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⁴⁾ 점차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정부로부터 그 계획이 승인될 것이란 소문이 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때부터 연구자는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가 인식하는 갈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관한 이슈는 이주와 보상,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환원, 지역애착, 가치관, 개발과 보존 또는 환경보호와

2) 심층면접에는 무주군 담당자 3명, 추진민간기업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자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계획 선정 현장평가, 기업도시관련 실행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음

3) 모든 현상은 에릭과 에틱관점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그러한 현상은 존재론적(ontological) 의미에서 단순히 현상으로 남는다. 즉,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에릭 또는 에틱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에릭과 에틱은 인식론(epistemology)과 관계있다(Lett, 1990: 132). 이러한 견해는 실제의 사건을 글로 표현하고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자(또는 관찰자)의 견해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릭과 에틱의 구분도 각각이 추구하는 지식의 본질과 관련이 있지 지식의 근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간부3명과 수용대상 지역주민 1명을 포함한 집단심층인터뷰가 2007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진지하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전체 과정이 녹음되었다.

경제성, 법제도 문제, 행정기관에 대한 기대와 역할, 지역파급효과, 경제적 현실과 심리적 불안 또는 불확실성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주민참여와 권한위임, 시기나 불신 또는 감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상호간의 관계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이슈는 또한 에틱의 관점으로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는데 개괄적인 윤곽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틱자료를 기초로 하여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나타나는 갈등현상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에틱방법을 이용한 갈등분석

에틱방법을 이용한 갈등분석은 '주변지역 지역주민', '지역의 NGO', '추진민간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주변지역 지역주민은 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계획대상지 밖의 주변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공간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편이다. 주변지역의 지역주민은 비록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들이 현재 완강하게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이 개발사항에 반대하는 것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상지와 인접한 주변지역의 지역주민들은 개발을 찬성하고 있지만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무주읍지역은 무주 관광레저도시의 개발로 인해 무주읍이 쇠퇴할 가능성도 관련자료의 분석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변지역 지역주민은 어떠한 이해당사자와도 갈등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무주읍지역은 잠재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역 NGO는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NGO는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역 NGO는 추진주체인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으로부터 격리되고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실상 지역 NGO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에 대한 사업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역 NGO의 도움으로 실현하였다. 따라서 지역 NGO는 추진주체와 갈등관계를 형성

하고 있고, 토지수용대상 지역주민과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이해당사자간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추진 민간기업은 갈등의 발생의 주체에 해당되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방정부로 미루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광레저도시 신청 당시 일부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주군의 사업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차후의 논의사안으로 미루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을 불리일으킬 수 있다는 불신이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추진기업은 무주군과 협력적 관계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무주군의 탓으로 돌리듯이 무주군과 다소 불편한 잠재적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추진민간기업은 무주리조트의 상가들과의 갈등을 보인다.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상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무주리조트의 상가들이 기업도시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1만명의 상주인구가 있고, 장기관광객이 150만명이 되니까 상권이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한다. 그렇지만 설득이 안되고 상권피해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한다.”

추진 민간기업은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들과 토지 및 건물 보상문제에 대하여 강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보상비를 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전입해왔고, 보상비도 높게 책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진기업으로 하여금 일부 전입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세대는 집을 세들어 사는 사람인데 외지에서 전입와서 47세대가 되었다. 이분들도 최소한 2,500만원은 보상을 받는다. 기업측에서는 공시지가의 2.5배를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감정가의 2.5배를 달라고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들과 강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원인은 관광레저도시 신청 당시 주민동의서 추진 상의 문제와 주민동의서 효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과 토지 보상문제와 연계되어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은) 무주군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동의서 98.2%가 불신의 씨인 것 같다. 동의서를 신청할 때 실무선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타군과의 경쟁에서 이미지를 위해서 1%의 점수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의서와 토지사용승락서와는 다른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기업도시)반대대책위원회의 지도부가 군청과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군청에서의 대책을 설명하면 그냥 보고는 주민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지역NGO와도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지역주민의 이해에 개입되어서 사업의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상 환경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활동경험이 있거나 활동하는 관계자가 지역주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상지 지역주민의 견해도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감지된다. 지방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주민을 접촉하여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토지수용 및 보상비와 이주에 개별적으로 다른 입장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토지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20% 정도의 주민들은 향후 생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획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개별적 입장과 전체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개별적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다. 토지가 많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먼저 토지를 넘기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세금이 실거래 가격으로 매겨지니까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지방정부는 추진민간기업의 사업을 인정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제안을 기업에 하기가 어려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금을 요구하였을 때 기업은 집행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 이를 차후의 논의사항으로 연기하였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영리성 추구하고 차후에 이어질 수도 있는 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기업도시조성에 대한 법안과 계획을 추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주체인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에 대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중앙정부는 기업도시가 가능한 신속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서는 지역의 사안이라 하여 개입하려 하지 않지만 갈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중앙정부는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과 NGO와는 협력적 중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반면 지역주민과 NGO는 중앙정부에 대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보는 동시에 무리한 법 집행이 원인이라고 보는 갈등의 제공자로도 보고 있다.

2. 에믹방법을 이용한 갈등분석

에틱방법을 통해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유형, 이해집단간의 갈등관계 등이 파악되었다. 에믹방법을 이용한 갈등분석은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들은 초기 기업도시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을 때 정보공개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선정되는 과정 동안에 설명회의 참석이 저조하니까 군에서 의도적으로 타지역의 주민들을 방청객으로 데려왔다고 인식하고 있고,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정보공개 투명성의 미비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을 때와 갈등이 부각될 때에도 나타났다고 지역주민은 인식한다.

“처음에는 마을 분들 중에 30% 찬성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땅값이 제시가 되기 전에.”

“국정자료로 (동의서) 원본을 제출해라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마지막에 무어라고 말을 했는가하면 자기가 옷을 벗고 불을 썬지르는 한이 있어도 제출 못합니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공람기간에 보라고 자료배치를 해봤어요. 와서 봐라. 그런데 그걸 누가 가서 들여다 보냐구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이틀만 빌려달라 하니까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 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복사도 안된다고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사진도 안된다고 하고.”

또한 공개된 정보라도 지역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로 된 정보는 도리어 개발주체에 신뢰감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계획도면에서 영어로 표기된 계획시설물에 대해 사업주체가 주민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한다고까지 오해한다.

정보공개와 투명성 문제는 또한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체가 기존의 계획내용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만남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은 같은 내용을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여 만남을 피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개별적인 편의서비스에 대해 지역주민은 지방정부의 의도 있는 서비스라 여겨 기피하는 등 의사소통을 단절하기도 한다. 더욱이 민간사업주체가 지역주민과의 회의에서 신뢰 있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사업주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녹음기를 못 켜놓게 해요. 그럼 계속 거짓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상지의 지역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정보공개와 투명성과 의사소통의 미비는 사업주체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 즉, 불신으로 나타난다. 이해당사자간에 신뢰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의 추진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범위에 걸쳐 갈등으로 나타난다. 지역주민은 지방정부에 대해 민간추진기업의 하수인정도로 인식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야기되는 갈등 현상이 지역신문에서 보도되지 않은 점이 지방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지역의 시민단체회원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한다. 특히 민간추진기업은 2005년 1월에 건교부에 공시지가를 낮추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믿고 있어 지역주민은 민간기업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기업도시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계획대상지의 지역주민은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에 대해 사업주체와 참여하게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보상비의 지급은 지역주민의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은 현재와 같은 보상비로는 이주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생계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 인식한다. 비록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책정되지만 주변의 토지시세가 향후 개발로 인한 기대이익으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주단지도 농촌가구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으며, 또한 가구마다 부채

를 안고 있고 보상비가 지급되면 우선적으로 부채를 변상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생계를 위협받는다라는 것이다.

“현재 보상가격으로는 다들 거지가 되어요. 지금 어디 가서 땅을 못 사요. ... 정부의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주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또는 지역연고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 지역은 수백 년 동안 몇 대에 걸쳐 살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인데, 기업도시개발로 인하여 그 근본이 허물어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령계층이 많은 농촌마을에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노인들이 저의 마을이나 주변마을이나 혼자 계신 분들 중에 호강한다고 아들을 쫓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내려왔어요.”

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은 지역주민간에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초기 기업도시 개발을 찬성하고 이끈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리더쉽을 잃게 된다. 토지가 일부 수용되는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기도 하고,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으로 전입해온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위해 이주해온 것으로 인식하는 등 지역주민 간에도 이해의 득실이 나누어져 잠재적인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은 계획대상지 인근의 지역주민, 특히 개발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계획대상지 인근의 토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지만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솔직히 찬성 대책위원회를 만든 사람들은 땅 하나 안 들어가요. ... 그런데 우리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느그들 희생해서 우리 덕 좀 보겠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시장만 갔다 오면 열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해당사자간 갈등상황이 지속되면 이해당사자간의 관계는 본질을 벗어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감정적인 극한 상황을 초래한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주체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방법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강경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은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동네어귀에 조망담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되어도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들은 개발주체의 누군가가 갈등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주민들을 위한 방식으로 계획이 수정되면 주민들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협력할 수 있으리라 인식한다. 주민들은 기존의 두 마을을 계획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마을을 보존하면서 생태전원마을로의 육성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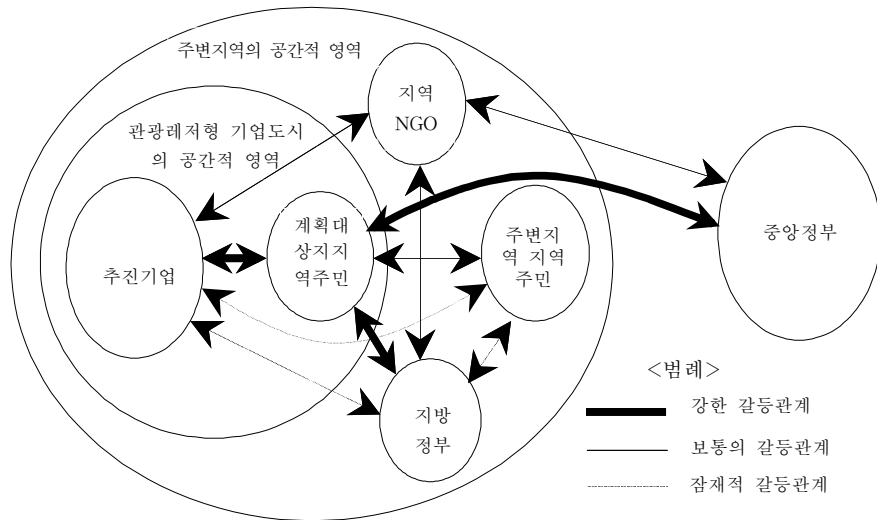
“... 천혜의 자원을 가진 이곳에다가 골프장을 만들면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골프장이 아니고 세계적인 무주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해가지고 너희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수 있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두고 볼 때 자연과 인문자원을 보전하고, 오히려 이를 농촌관광사업과 같이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시대의 흐름과 위배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개발인가 소수의 삶을 존중하는 보존인가에 대한 두 가지 명분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 이해집단간 갈등관계분석

위와 같이 에틱과 에믹방법을 이용하여 이해집단간 갈등관계를 도시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볼 수 있는 추진기업·지방정부·중앙정부에 대하여 강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 NGO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추진기업·지방정부·중앙정부에 대해서 보통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진기업과 지방정부는 현재 공조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보상과정에서 책임의 소재에 대해 상호 떠맡기는 듯 한 인식을 갖고 있어 잠재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지역주민 가운데 무주읍과 구천동지역의

상인들은 당장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관광레저도시가 완공될 시점에 상권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이해집단 간의 갈등관계

V. 결 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에믹관점과 일반적인 공통의 특성을 고려하는 에틱관점은 한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기술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믹과 에틱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차이로 한 이해당사자가 그 사건을 주도하는 상대되는 이해당사자에 대해 적극적인 반지지적 또는 저항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에믹과 에틱방법으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해본 결과 계획대상지내의 지역 주민은 특히 계획을 주도하는 계획주체와 비교해볼 때 서로 다른 사고와 반응으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에틱방법과 에믹방법에서 도출된 갈등의 원인과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기업도시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기업 도시의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이 생존의 위협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지금까지 몇 세대가 살아온 주거지가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없어지고, 보상을 받더라도 경제적인 욕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당면의 과제로 나타난다. 반면 추진주체는 법제도적인 조건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는 특성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로 추진주체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심각성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결국 강한 갈등관계로 확대되어 갔는데, 이는 곧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형식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갈등이 형성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보상·이주지 제공·환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반영이 안된 대안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수정·보완이 과제로 남는다.

둘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을 때 계획대상지 내의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에 충분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초기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이해집단간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과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이라 볼 수 있고, 갈등의 본질을 유발하는 간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초기에 사업대상지역의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예: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예: 공식적인 자료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적인 보조자료)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해당사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해당사자간의 신뢰성의 구축은 차후의 사업절차를 훨씬 용이하게 진행하게 한다.

셋째, 계획대상지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이 주도되다보니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가 세심하지 못했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도 반대되는 세력으로만 이해하려는 등과 같은 태도는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전이해 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안으로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나아가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위임(empowerment)까지

도 포함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믹과 에틱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관찰된 사회현상을 인식론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아무리 연구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사고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더라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즉, 갈등의 본질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당성을 판단(justice judgment)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나타난다(Earley & Randel, 1995). 아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고안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후의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해안 있는 연구자의 성과를 고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에믹방법을 계획대상지역 내 지역주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갈등이 고조됨으로 인해 마을봉쇄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바람에 충분히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 후 마을에 대한 관찰과 보도내용의 분석과 같은 에틱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지역주민 개개인을 충분히 접촉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에서 에믹방법의 연구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물론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에믹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기술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에믹방법의 적용에 대해서 연구의 한계로 남겨두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보완·수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김창수(1996). 지역관광개발계획과정의 집단간 갈등요인. 『관광학연구』, 20(1), 242-259.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논형.
- 송재호(1997).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이해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석(2006).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한 지역주민의 갈등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석·이태희(2005). 지역축제 이해집단 분석틀을 위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28(4), 295-312.
- 유광민·김남조(2007). 권력과 게임이론을 이용한 지역관광개발 갈등원인 분석: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제62차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1권, 307-320).

- 이한검 · 이수광(2000). 『인간관계』. 서울: 형설출판사.
- 천태윤(2005). 『갈등관리와 협상전략론』. 서울: 선학사.
- 홍성화(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에 대한 지역이해집단의 협력방안. 『관광학연구』, 27(2), 177-195.
- Axelrod, L., & Johnson, R. R.(2005). *Turning Conflict into Profit: A Roadmap for Resolving Personal and Organizational Disputes* Edmonton: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 Berry, J. W.(1990). Imposed Etics, Emics, and Derived Etics: Their Conceptual and Operational Statu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In T. N. Headland, K. L. Pike, and M. Harris (eds). *Emics and Etics: The Insider/Outsider Debat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Butler, R. W.(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5-12.
- Doxey, G. V.(1976).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 Earley, P. C., & Randel, A.(1995). Cognitive causal mechanisms in human agency: etic and emic consideration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6(3), 221-227.
- Hall, C.(2000). Rethinking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a public policy perspective. In Bramwell, B. and Lane, B. (eds.), *Tourism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Politics, Practice, and Sustainability*(pp.143-158), Channel View: Clevedon.
- Harris, M.(1990). Emics and etics revisited. In T. N. Headland, K. L. Pike, and M. Harris (eds). *Emics and Etics: The Insider/Outsider Debat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Herche, J., Swenson, M. J., & Verbeke, W.(1996). Personal selling constructs and measures: emic versus etic approaches to cross-nation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0(7), 83-97.
- Jamal, T., & Getz, D.(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186-204.
- Johnson, J. D., Snepenger, D. J., & Akis, S. (1995).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629-642.

- Lederach, J. P.(2003). *The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Good Books.
- Lett, J.(1990). Emics and etics: notes on the epistemology of anthropology. In T. N. Headland, K. L. Pike, and M. Harris (eds). *Emics and Etics: The Insider/Outsider Debat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Mathieson, A., & Wall, G.(1987).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Mckercher, B.(1992). Tourism as a conflicting land us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3), 467-481.
- Morris, M. W., leung, K., Ames, D., & Lickel, B.(1999). Views from inside and outside: Integrating emic and etic insights about culture and justice judg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4), 781-796.
- Pike, K.(1990). On the emics and etics of Pike and Harris. In T. N. Headland, K. L. Pike, and M. Harris(eds). *Emics and Etics: The Insider/Outsider Debat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Pike, K. L.(1967).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The Hague, Netherlands: Mouton & Co.
- Reed, M.(1997). Power relations and community-based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566-591.
- Selin, S.(1999). Developing a typology of sustainable tourism partnership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7(4), 260-273.

2008년 4월 22일 접수
2008년 6월 1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